구축(構築) : ㉠어떤 시설물을 쌓아 올려 만들.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

타협적(妥協的) :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의해서 하거나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또는 그런 것.

필요(必要) :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오답] 나머지 선택지들은 ㉢에서 이미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④ [한자의 표기. 난이도 中]

[풀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마(磨)’는 ‘갈 마’이다. 반면 나머지 ‘마이동풍(馬耳東風), 주마간산(走馬看山), 천고마비(天高馬肥)’의 ‘마(馬)’는 ‘말 마’이므로 한자의 표기와 뜻이 다르다.

12. [정답] ① [외래어 표기법. 난이도 下]

[풀이] ‘리포트(report), 서비스(service), 워크숍(workshop), 콤플렉스(complex)’가 적절하고, ‘레포트, 써비스, 워크샵, 킴플렉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② : 쥬스(X) → 주스(O).

③ : 로케트(X) → 로켓(O).

④ : 싸인(X) → 사인(O).

13. [정답] ④ [어휘. 난이도 中]

[풀이] 다의어 ‘배다’의 의미를 묻고 있다. <보기>의 ‘배어’는 ‘느낌, 생각 등이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는 의미이며, ④번과 같다.

14. [정답] ② [품사. 난이도 上]

[풀이] ‘한, 뽀’이 명사이다. ‘가능한 한’의 ‘한(限)’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웃을 뽀’의 ‘뽀’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친구를 만남으로써’의 ‘만남’은 ‘만나서, 만나고, 만나니’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사이다. 참고로, ‘만남을 주선하다’의 형태는 명사이다. 또한, ‘나를 보기 위해’의 ‘보기’도 ‘보다, 보고, 보는’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만약 ‘보기를 읽고 ~’의 ‘보기’라면 명사가 된다.

15. [정답] ④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예술의 의미’,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예술의 개념’을 중심 소재로 삼아 제목을 만들면 된다. 특히 두 번째 단락에서 ‘18세기에 들어와서 의미를 한정해서 썼다’는 것으로 보아 ‘예술의 어

원과 그 의미의 변화’가 제목으로 적절하다.

16. [정답] ① [문법. 난이도 上]

[풀이] ①번의 형태소는 12개이다. ‘남, 기, 어, 지, ㄴ, 적, 도, 물리, 치, 었, 겠, 네’로 나눌 수 있다. ‘남, 기(접사), 어(연결 어미), 지(어간),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적(명사), 도(조사), 물리, 치(접사), 었(선어말어미), 겠(선어말어미), 네(어말어미)’로 분석될 수 있다. 어간, 어미, 접사, 조사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어미도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참고] 형태소 분석은 학자들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오답]

② : 11개. (너, 틀, 위, 하, 여서, 땀, 을, 흐르, 리, 었, 어).

③ : 11개. (흠치, 어, 가, 앓, 을, 수, 도, 있, 겠, 군, 요)

④ : 10개. (달, ㄴ, 팔, 죽, 이, 라도, 가지, 어, 오, 아야지)

17. [정답] ② [비문학 순서. 난이도 中]

[풀이] 선택지 중 맨 끝에 (나)가 두 번 나오므로 답을 ②번이나 ③번으로 제한해 찾으면 효율적이다. (가)의 끝에 ‘상품~자립적인 삶’이 나오고 (다)에 ‘상품은~곧 독자적인 인격체’라고 했으므로 두 단락이 이어져야 하고 (라)의 ‘또한~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이어서 (나)의 ‘이처럼~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와야 한다.

18.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上]

[풀이] ‘환경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오답]

① : ‘도시락과 종이컵’을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는 아니다.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19. [정답] ①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며 훈련이나 습관이 요구된다.’고 지문에 나와 있으므로 ①번은 부합하지 않는다.

20.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주제는 글의 중간 이후에 주로 나타난다. 글에 나타난 부처의 가르침을 일반화하면 주제가 된다. 즉, ‘걸고 있을

때는 걸어라.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라'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③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이거나 일치하지 않는 정보이다.

<2014년 지방직 9급 국어 총평>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유형	문항수	비율
1	비문학	7	35%
2	어문 규정	3	15%
3	어휘	3	15%
4	문법	3	10%
5	한자의 표기	1	5%
6	한자 성어	1	5%
7	어법	1	5%
8	속담	1	5%

2. 전년도에 비해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 2014년 지방직 시험에서 비문학 문제가 7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문제 출제된 것과 달리 비문학 유형이 많아졌습니다. 2014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도 비문학이 6문제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문학 유형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치, 주제, 제목, 전개 순서, 전개 방식 등 비문학 독해와 사실적 사고 유형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쉬운 편입니다.

-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학 영역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한자 관련 문제도 대체로 쉬웠습니다. 어문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독해 지문이 길고 양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부족했으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비문학 지문을 꾸준히 읽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4.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 5번, 10번, 14번, 16번, 18번 문제 등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단어의 표기, 품사, 형태소의 개수, 논지 전개 방식 등의 문제이며 그 이외에도 함정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도 다시 있었습니다. 특히 '형태

소의 개수'와 '명사'를 묻는 문법 문제는 매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느꼈던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문법 영역은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집요하고 자세히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5.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내년에 출제될 유형이 있습니다.

- 내년에는 문학 영역이 출제될 것입니다. 2013년 지방직 시험에서도 4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현대시와 고대시가 영역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에는 고시조와 한자성어를 연계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학 작품과 어휘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 언어 예절, 음운 현상, 단어의 형성 방법 등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 또한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올해 기출문제를 통해 내년 문제를 예상해 보는 것도 현명한 공부 방법입니다.

6. “진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 혹시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에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아쉬움보다는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채우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시련보다는 시련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cafe. daum. net/jwskorean)
“불가능한 꿈을 꾸었다면 불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